



환경기술인의 시대 서막 ‘활짝’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환경인사 500여명 참석

산업현장의 환경과수꾼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 온 환경기술인의 시대가 도래했다.

환경기술인의 모임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0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매년 이날을 환경기술인의 날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국감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 대신 참석한 김형섭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신응배 추진위원장 등 환경관계 인사를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상호 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환경기술인의 시대가 도래됐음을 만천하에 고한다”고 전제하고 매년 이날을 환경기술인의 날로 기념식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 취지와 목적은 국가환경보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환경기술인의 권익보호와 위상 제고는 물론 그 업적을 높이 기리며, 이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기술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 환경기술인은 지속가능한 환경기술의 발전주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 사회의 초석과 기둥이 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의 책무를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현장을 제정

한다”라는 환경기술인 현장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10월 10일을 환경기술인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오염물질 10% 저감운동과 기술력 10%향상을 위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평가하여 기리기 위해 이날을 기념하고자 함이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지난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당시 광결호 환경부장관을 비롯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환경인사를 초청하여 환경기술인의 날 선포식을 거행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관련 유공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상 표창과 연합회장상 및 제17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장도 있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정책현안인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설명과 총량제 실시에 따른 신기술 발표회도 가졌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송시훈 박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과 과제’를, 국립환경과학원 박배경 박사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현황 및 전망’을, 대구광역시 최정환 박사가 ‘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체 대응방안’을, 환경부 산업폐수와 김수찬 사무관이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10면)

또한 신기술 발표는 (주)동일그린시스에서 ‘수질 TMS 조기구축에 따른 제안’을, (주)카이스코퍼레이션이 ‘산업폐수 처리기술 설명’을, 한국바이오시스템(주)에서

❖ 연합회 행사 ❖

‘총량제 실시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소개 및 제언’을, 브란루베(주)에서 ‘총량제와 질소·인·유기물 측정기술’을, 정우교역(주)에서 총량제에 따른 TOC유기물 자동측정기 소개’ 등을 발표했다.

◆환경부장관상 수상자 : 태아산업(주) 허원정 과장, 동화약품공업(주) 이명구 환경시설팀장, (주)일신종합환경 유남종 대표이사, 테스트코리아(유) 이명식 이사, (주)환경일보가 수상했다.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수상자 : 금강대장 - 한진희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 환경관리과장, 금강 - 원유필 SK케미칼(주) 수원공장 과장, 은장 - 신도재 두산인프라코어(주) 차장, 동장 - 장진우 한일환경엔지니어링 대표, 이수환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양산공장 환경팀 대리가 수상했다.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감사패 및 표창패 수상자 : 전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김강원 과장, (주)씨맥 박종택 대표이사, 영광금속 환경팀 오병렬 팀장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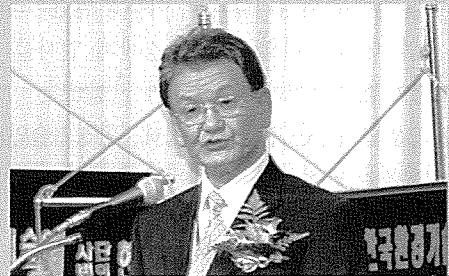
▲ 전체 수상자들 기념촬영



▲ 이재용 환경부장관 추시를 대독하는 김형섭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추사



▲ 신웅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회장 격려사



▲ 이상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기념사